

노형욱 장관 ‘전기차·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’ 강조

-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,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지시 -
- 자율차 기술 선도를 위한 자율주행 실험도시(K-City)의 역할 강조 -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,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,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, 기술개발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□ 이날,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 관리,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,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, 전기차 제작결합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.

○ 이 자리에서 “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,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”하다면서,

○ “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신속한 리콜체계의 구축·운영이 중요”하다고 강조하였다.

- 특히,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,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전기차·수소차에 대한 안전·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,

-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“을 주문하였다.

□ 이후,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-City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, 스타트업(오토노머스 에이투지)이 개발한 자율차를 시승하는 등 국내 자율차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

- 자율차 시승 이후, 노 장관은 “자율주행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신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”면서,
- “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정비, 자율주행 인프라(C-ITS, 정밀도로지도 등) 전국 구축, K-City 고도화, R&D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1. 9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